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쟁점과 신용평가 시사점

이정현 금융SF평가본부 금융평가1실 수석연구원 02-2014-6291 jh.lee@nicerating.com
곽노경 금융SF평가본부 금융평가1실장 02-2014-6235 nkkwak@nicerating.com

2025.08.19.

SUMMARY

국내 스테이블코인 도입 검토 배경

-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자산의 가격 변동성 문제를 보완하면서도, 블록체인 기반의 실시간 정산 및 자동화된 지급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어, 디지털 자산 시대에 부합하는 지급결제 인프라의 주요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 국내에서는 ①통화주권 확보, ②지급결제 인프라 혁신, ③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보완, ④디지털 경제 대응력 제고라는 정책적 필요성이 맞물리며 도입 논의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고 있다.

해외 스테이블코인 도입 현황 및 국내와의 차이

- 주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대부분이 USDT(테더)와 USDC(서클)이 차지하고 있으며, 사용 목적은 결제보다는 가상 자산 거래 및 디지털 자산 투자에 집중되어 있다. 실제로 전체 스테이블코인 거래의 약 90%가 가상자산 거래 및 투자에 활용되고 있으며, 가상자산 거래의 약 84%가 USDT 및 USDC 같은 스테이블코인으로 거래되고 있다. 그 외 기술적 효율성과 수수료 절감 등의 이점을 기반으로 국가 간 송금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으나, 가상자산 생태계 외부의 실물결제 영역에서는 제한적인 사용에 머물고 있다.
- 국내 도입을 검토 중인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사례와 비교할 때, 활용 영역에서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한다. 투자-헤지수단으로서의 성격보다, 실생활 결제, 송금 등 제도권 내 지급 인프라 혁신수단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 실명확인을 통한 원화 기반 가상자산 거래구조의 정착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가상자산 거래수단보다는 실물경제 내 결제수단으로서의 역할이 보다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화는 국제 결제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의 보유 수요가 제한적이며, 이로 인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활용은 주로 국내 시장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
- USDT 및 USDC 등 주요 스테이블코인을 제외한 결제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도입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미국에서는 페이팔(Paypal) 플랫폼 내에서 PYUSD(Paypal USD)를 통해 상품을 거래하는데 이용할 수 있으며, 일본은 라이선스 획득 이슈로 법적 스테이블코인 지위는 미확보상태이나, JPYC(JPY Coin)가 온라인 쇼핑, 디지털 콘텐츠 구매, 비자 선불카드 충전 등 주로 온라인 및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사용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XSDG(StraitsX SDG)가 그래페이에 연동하여 사용될 수 있다.
- 세 가지 스테이블코인 모두 사용자 편의성과 수수료 절감 측면에서 이점이 있으나, 가상자산 거래 목적이 아닌 실물 결제와 송금 등 제도권 내 지급수단으로 실사용되는 사례는 제한적이다. 결제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내 안착은 아직까지 실험적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실제 정착을 위해서는 법제화, 사용자 혜택 설계, 사업자 참여 등 복합적인 요건 충족이 선결 과제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스테이블코인 도입 추진 경과 및 영향

- 국내에서는 2025년 들어 스테이블코인 도입 관련 제도화 방향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2025년 6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해당 법안은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의 정의, 발행 및 유통 요건, 발행자의 자기자본 규제, 환불 준비금 보유 의무, 공시 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무위원회 심사 및 공청회, 본회의 통과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고 활성화될 경우, 소비자, 사업자, 금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구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단순히 결제수단이 추가되는 차원을 넘어, 기존 지급결제 시스템의 구조 및 비즈니스 모델의 재편성까지 수반할 수 있는 변화이다. 소비자 측면에서 기존 원화 결제 시스템과 유사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되, 디지털 결제의 실용성과 접근성이 개선된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가운데, 수수료 문제로 인해 수용이 제한적이었던 소액결제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노점상, 영세 자영업자 등 오프라인 기반 소매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 금융시스템 전반에 있어서는 기존 금융기관 중심의 예금 기반과 중개기능에 도전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스테이블코인으로 자금이 이동할 경우 은행 예금 기반 축소 및 중개기능 약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구조 및 유동성 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대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신규 금융상품 개발, 결제 및 발행 관련 신규 수수료수익 창출 등 비즈니스 모델 다각화 및 디지털 전환의 기회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금융업권별 신용위험에 미치는 영향

- 국내에서도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사용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가 가시화됨에 따라, 향후 실제 발행과 사용이 본격화될 경우 금융업권별 수익구조와 사업기반에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상대적으로 경제적 효용이 크지 않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생태계가 형성될지 여부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결제 기반 원화 스테이블코인(지급결제용)의 사용이 활성화된 상황을 가정하고, 비즈니스 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업권별 신용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서 발행자가 아닌 준비금 수탁기관의 역할에 머무를 경우, 스테이블코인의 사용 확산에 따라 해당 준비금만큼 기존 은행 예금에서 자금이 이탈할 수 있으며, 이는 은행의 수신 기반 축소 및 대출 여력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규모의 경제 확보가 중요한 은행업 특성상, 예금 유치를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할 유인이 발생할 수 있어, 조달비용이 상승하여 순이자마진이 하락할 수 있다. 또한, 송금 및 결제 영역에서 스테이블코인 기반의 저렴한 서비스와의 경쟁이 불가피해지면서, 기존 수수료수익의 감소도 예상된다. 따라서 수신기반 약화, 이자 및 수수료 수익 감소 등으로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다.
- 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직접 발행자로 참여할 경우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준비금 운용수익 및 신규 수수료수익원 확보를 통해 수익성 저하 폭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 더불어, 디지털 결제 생태계에서 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자 지위 획득을 통해 시장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준비금 운용수익 획득에도 불구하고 대출로 운용할 수 있는 예금이 줄어들게 되어, 은행의 전반적인 이자수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국가간 결제 및 송금 수요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은행의 예수기반을 축소시키고 대출 여력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자 지위 획득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의 폭이 보다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 신용카드업에 대해서는 스테이블코인의 결제와 정산 과정에서의 중개단계 축소 및 수수료 절감 효과를 고려할 경우, 구조적으로 기존 신용카드 기반 결제구조에 대한 대체수단으로 작용하며 수익구조를 위협할 수 있다. 다만, 국내 신용카드사의 경우 스테이블코인과 유사한 속성을 가진 체크카드의 사용비중이 높지 않아, 부정적인 영향의 정도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판단한다. 스테이블코인은 사전에 준비금을 예치해야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구매자 입장에서는 체크카드와 유사한 속성을 가진다. 2024년 기준 신용카드 업권 내 체크카드 수수료 수익이 전체 가맹점 수수료 수익의 약 10% 내외, 전체 영업수익의 약 5% 내외를 차지하고 있어,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따른 체크카드 사용 감소로 인해 영업수익 및 관련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카드업권 전체의 사업기반 및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 증권업에는 단기적으로는 중립적이나,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판단한다. 현재 증권사의 전통적인 수익모델(브로커리지, IB, 자기매매 등)과 스테이블코인의 직접적인 연계성은 낮은 편이다. 그러나, 토큰증권(STO, Securities Token Offering) 시장의 확산과 맞물릴 경우, 향후 토큰증권 발행 주관, 유통 플랫폼 제공, 디지털 자산 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스테이블코인과 연계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으며, 다양한 비정형 자산으로 서비스 제공 대상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전통적인 수익모델에서 창출되는 수익 대비 토큰증권과의 연계 수익 비중은 높지 않을 것이나, 신규 사업영역 확대 및 수익기반 다변화 측면에서 기회 요인으로 판단한다.
- 캐피탈사에는 중립적이나, 저축은행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캐피탈사의 경우 자동차, 주택, 기계장치 등 자산담보 중심의 할부, 리스, 대출 상품을 주력으로 하고있어, 전반적인 영업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반면, 저축은행의 경우 스테이블코인이 실시간 송금·결제가 가능한 저비용 디지털 현금 수단으로 인식될수록, 저축은행 예금이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 핵심 자금조달원인 예금의 유치경쟁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저축은행은 예금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조달금리를 상향 조정할 유인이 높아지며, 이는 이자마진을 축소시켜 수익성을 저하시키고 유동성 관리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상기의 분석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및 결제 기반의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이 활성화된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현재 도입 추진 중인 국내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많은 요소 및 특성들이 미확정된 상황으로, 향후 도입 과정에서 세부 특성들이 확정되어감에 따라 금융업권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과 정도는 변동될 가능성이 높다. NICE신용평가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화 경과, 발행자 선정 대상, 실제 사용 확산 수준, 업권별 대응전략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관련 요소를 금융업권 신용평가시 반영할 계획이다.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따른 금융업권별 영향 전망

구분	은행	신용카드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영향	부정적	중립적	긍정적	중립적	부정적
영향대상	사업포트폴리오		사업포트폴리오		수익성
	수익성	수익성	수익성	NA	유동성
	유동성				
영향강도	보통	낮음	낮음	낮음	보통

자료: 현재 검토시점에서의 NICE신용평가전망

주1: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및 결제 기반 원화스테이블코인의 사용이 활성화된 상황을 가정하고, 비즈니스 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신용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주2: 현재 도입 검토 중인 스테이블코인 관련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향후 제도 변화와 금융업권별 대응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목차

I. 국내 스테이블코인 도입 검토 배경	5
II. 해외 스테이블코인 도입 현황 및 국내와의 차이	6
1. 해외 주요 스테이블코인 현황	6
2. 도입 검토 중인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과의 차이	7
3. 결제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관련 해외 사례	8
III. 국내 스테이블코인 도입 추진 경과 및 영향	10
1. 국내 스테이블코인 도입 진행 현황	10
2. 스테이블코인 도입시 영향 전망	12
3. 도입과 관련한 쟁점	12
IV.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금융업권별 신용위험에 미치는 영향	13
1. 은행	14
2. 신용카드	15
3. 증권	17
4. 캐피탈 및 저축은행	18
V. 시사점	18

I. 국내 스테이블코인 도입 검토 배경

통화주권 확보, 지급결제 인프라 혁신, CBDC 보완, 디지털 경제 대응력 제고 등의 목적으로 국내 스테이블코인 도입 추진

최근 금융당국과 정치권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제도 정비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자산의 가격 변동성 문제를 보완하면서도, 블록체인의 실시간 정산 및 자동화된 지급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어, 디지털 자산 시대에 부합하는 지급결제 인프라의 주요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통화주권 확보, 지급결제 인프라 혁신,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보완, 디지털 경제 대응력 제고라는 정책적 필요성이 맞물리며 도입 논의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고 있다.

● 통화주권 보호 및 외환리스크 차단

핵심적인 정책 목적은 통화주권 보호 및 외환시장 리스크 차단이다. 현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USDT(테더), USDC(서클)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해당 자산들이 국내에서 결제나 송금, 자산거래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원화의 실물경제 내 통화기능이 점차 약화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 존재한다. 이는 통화정책의 유효성 저하, 외환수급 불균형, 환율 변동성 확대 등 거시경제 안정성에 대한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책 당국은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함으로써, 글로벌 디지털 화폐 생태계 내에서 원화의 위상을 확보하고 통화 질서를 보호하려는 전략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

● 지급결제 인프라 혁신

국내 지급결제 구조는 신용카드사를 중심으로 PG(Payment Gateway)사, VAN(Value Added Network)사 등 복수의 중계기관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결제 비용이 높고 정산에 시차가 발생하며 금융기관의 영업시간 중심으로 운영시간이 제약되는 등 실시간성·접근성·비용효율성 측면에서 지급결제 시스템에 한계가 존재한다. 스테이블코인은 24시간 정산 가능성과 비용 절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지급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어, 기존 지급결제 인프라를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 CBDC 보완 수단

한국은행은 현재 금융기관 간 결제에 활용되는 도매형 CBDC에 집중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이 사용하는 소매형 CBDC에 대해서는 기술적·운영적 부담, 금융중개기능 위축 우려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매형 디지털 결제수단의 공백을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코인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병행하고 있다. 민간 스테이블코인은 실제 유통 및 결제 과정에서의 유연성과 접근성을 갖춘 소매형 디지털 결제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CBDC와 상호보완적 관계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 디지털 경제 대응력 제고

전통 통화의 디지털 환경에서의 활용성이 점차 하락하는 가운데, 디지털 환경에서의 통화 경쟁은 점차 격화되고 있다. 특히 국경 간 자산거래 및 디지털 금융플랫폼에서 스테이블코인의 활용도는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이 같은 추세 속에서 스테이블코인 확보에 실패할 경우, 국

내 통화의 국제적 위상이 약화되고 디지털 자산 생태계 내에서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추진은 국내 디지털 금융 경쟁력 제고 및 원화의 국제 활용도 강화 측면에서도 전략적 의의를 갖는다.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단순한 결제수단의 변화가 아니라, 통화 정책과 금융 인프라, 외환시장 안정성, 디지털 경제 전략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정책 과제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도입 배경을 바탕으로, 먼저 주요 해외 스테이블코인 도입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도입 예정 모델과의 차이를 비교한다. 이후 국내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한 진행경과 및 도입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금융업권별 신용평가 관점에서의 리스크 및 기회 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해외 스테이블코인 도입 현황 및 국내와의 차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 확장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스테이블코인이 등장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제도권 내 결제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실험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스테이블코인이 실물 결제보다는 가상자산 거래와 투자, 국경 간 송금 등 일부 용도에 한정되어 있으며, 전통적인 지급결제 수단을 대체하는 수준에 도달한 사례는 제한적이다.

1. 해외 주요 스테이블코인 현황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인 USDT, USDC가 전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가상자산 거래 및 디지털자산 투자, 국가 간 송금 등에 사용되고 있음

2025년 5월말 기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시가총액은 약 2,309억 달러(주요 스테이블코인 10종 기준)에 달하며, 이는 2021년초 270억 달러 수준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전체 시장의 대부분은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인 USDT(테더)와 USDC(서클)가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시가총액은 각각 1,531억달러, 610억달러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까지 주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사용 목적은 결제보다는 가상자산 거래 및 디지털 자산 투자에 집중되어 있다. 실제로 전체 스테이블코인 거래의 약 90%가 가상자산 거래 및 투자에 활용(BCG, 2025.05)되고 있으며, 가상자산 거래의 약 84%가 USDT 및 USDC 같은 스테이블코인으로 거래되고 있다. 그 외 기술적 효율성과 수수료 절감 등의 이점을 기반으로 국가 간 송금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으나, 가상자산 생태계 외부의 실물결제 영역에서는 제한적인 사용에 그치고 있다(BIS, 2024.06).

그림1.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 동향

(억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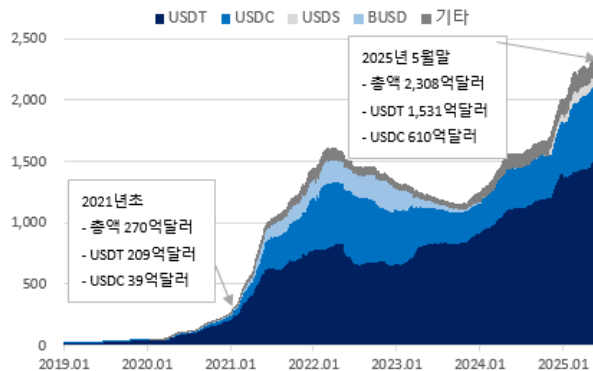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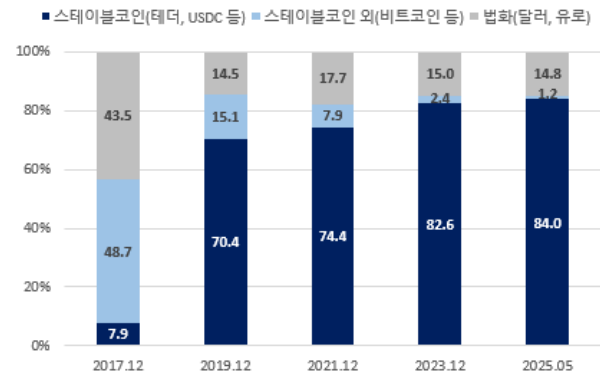


그림2. 가상자산 거래 수단 비중

(%)



자료: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25년 6월), 참고3: 스테이블코인 동향 및 금융안정 관련 잠재리스크

2. 도입 검토 중인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과의 차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투자 및
결제수단으로서의 성격보다는 결제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임**

국내 스테이블코인 도입 검토 배경은 USD, USDC 중심의 글로벌 수요 집중을 분산시키고, 통화주권 방어 및 디지털 화폐 환경에서의 원화 활용도 제고라는 정책적 목적을 추구한다. 그러나 글로벌 사례와 비교할 때 활용 영역에서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기반으로 원화를 직접 입금하여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실명 기반의 거래구조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있으며, 업비트 등 국내의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도 원화시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가상자산 거래수단으로 활용될 유인이 크지 않아, 실질적으로 실물경제 내 결제수단으로서의 역할이 보다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달러는 글로벌 기축통화로서 결제 수단이나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려는 유인이 존재하며, 이와 연동하여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도 자체적으로 보유하려는 유인이 존재한다. 반면, 원화는 국제 결제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의 보유 수요가 제한적이며, 이로 인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활용은 국내 시장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실질적 확산을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혜택, 수수료 절감, 포인트 적립, 속도 개선 등 사용과 관련한 실질적 효용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즉, 국내 도입을 검토 중인 스테이블코인은 투자·결제수단으로서의 성격보다, 실생활 결제, 송금, 전자지급결제 등 제도권 내 지급 인프라 혁신 수단이나, 지급 조건을 사전에 설정(특정 상품 구매, 특정 기간 내 사용)하고 자동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목적기반화폐(PBM, Purpose Bound Money)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

3. 결제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관련 해외 사례

결제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시장에서 초기 단계이며 결제·송금 분야에서의 실사용 비중은 제한적

USDT 및 USDC 등 주요 스테이블코인을 제외하고 자국통화 기반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은 아직 글로벌 시장에서 도입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가상자산 거래 목적이 아닌 실물 결제와 송금 등 제도권 내 지급수단으로 실사용되는 사례는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국을 중심으로 결제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결제 생태계 구축이 점진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민간 결제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해 실제 유통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다. 이에 미국, 일본, 싱가포르의 주요 결제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도입과 관련한 진행 수준과 각 코인별 특징을 파악해본다.

● 미국 - PYUSD(Paypal USD)

2023년 8월 글로벌 결제 기업인 페이팔(PayPal)이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PYUSD를 출시하였다. 1PYUSD는 1USD의 가치에 연동된다. 페이팔은 PYUSD의 유통 및 결제 생태계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팍소스 트러스트 컴퍼니(Paxos Trust Company, LLC)는 페이팔의 위탁을 받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이와 관련된 준비금을 관리한다. 준비금은 발행량에 해당하는 만큼의 달러 예금, 단기국채, 현금 등가물로 100% 보유된다.

구매자는 페이팔 플랫폼을 통해 PYUSD를 구매, 판매할 수 있고, 국가 간 결제시 거래 및 환전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특히, 판매자의 경우 국제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을 때 보다 거래수수료가 크게 절감되며, 즉각적으로 대금을 정산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 또한, 이용자는 PYUSD 잔고를 보유할 경우 보유액의 일정 비율(연 4.0%, 변동가능)을 PYUSD로 제공하는 등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미국에서 통과된 GENIUS Act의 경우 발행자가 사용자에게 이자를 직접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페이팔은 PYUSD의 발행자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로서 이자가 아닌 보상으로 제공하고 있어, 법안의 직접적인 규제를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임). 결제 수단으로의 활용 비중은 아직 전통 수단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나, 출시 시점을 고려하면 비교적 성장세(2025년 7월말 기준 스테이블코인 내 시가총액 약 11위)는 빠른 편이다. 광범위한 사용자 기반과 접근성을 바탕으로 국제 거래 비용 절감과 판매자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를 통해 실질적인 상업 결제 분야에서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 일본 - JPYC(JPY Coin)

JPYC는 민간기업인 JPYC 코퍼레이션이 발행하는 엔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으로, 2021년 출시되었으며, 일본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100% 엔화 준비금을 담보하고 있으며, MUFG(Mitsubishi UFJ) 금융그룹의 별도 신탁계좌에 보관되고 있다. 다만, 발행자가 은행, 신탁회사, 자금이체업자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로 현재 선불지급수단으로 분류되어 일본 내 법적 스테이블코인 지위는 미확보 상태이다. JPYC는 온라인 쇼핑, 디지털 콘텐츠 구매, 비자 선불카드 충전 등 주로 온라인 및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법정통화로의 환급(Off-Ramp)이 불가능하고 사용 혜택도 제한적이어서 아직은 일상생활 전반

으로 확산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다. 현재 자금이체업자 등록을 추진 중이며, 등록 시 법적 스테이블코인 지위를 획득할 전망이다.

● 싱가포르 - XSGD(StraitsX SDG)

싱가포르에서는 핀테크 기업 스트레이츠엑스(StraitsX)가 2020년 싱가포르 달러(SGD) 연동 스테이블코인 XSGD를 발행하였다. 발행량의 100%에 해당하는 준비금을 싱가포르달러와 싱가포르통화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이 발행한 어음으로 보유한다. 해당 준비금은 DBS(The Development Bank of Singapore) 은행 및 스탠다드차타드(Standard Chartered) 은행과 같은 싱가포르 내 주요 은행에 보관된다. 현재는 디지털 인프라 내 가상자산 거래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그밖에 기업간의 국경간 결제 및 정산효율화를 위해 B2B 결제에서 사용되고 있다. 아직 미미한 수준이나 B2C 결제 영역에서도 일부 사용되고 있으며, 실생활 사용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XSGD 사용의 대표적인 사례는 그랩페이(GrabPay) 및 알리페이+(Alipay+)와의 연동이다. 그랩페이는 차량 호출, 음식 배달, 온라인 쇼핑 등 다양한 소비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그랩(Grab)의 결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연동 과정에서 XSGD는 '그랩페이 가맹점에서만 송금될 수 있다'는 조건이 부여된 목적기반화폐(PBM)로 사용되었다. 관광객이 자국 통화로 알리페이+ 앱을 사용해 결제하면, 해당 금액이 XSGD로 전환되며, 이후 XSGD는 정산 수단으로 사용되어 가맹점의 계정에 싱가포르달러로 실시간 입금된다. 이와 같은 구조는 카드 대비 수수료가 낮고 환전 절차가 간소화되는 장점이 있어, 사용자 편의성과 수수료 절감 측면에서 유리하다.

표1. 결제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관련 해외 현황

항목	PYUSD	JPYC	XSGD
출시년도	2023년	2021년	2020년
발행자	Paxos Trust Company	JPYC	StraitsX
화폐	달러 연동	엔화 연동	싱가포르달러 연동
준비금	예금, 미국국채, 현금등가물	예금	예금, MAS 발행어음
사용처	페이팔 플랫폼 내 결제, 송금	온라인 및 디지털 콘텐츠 결제	디지털
사용 수준	높지 않음	높지 않음	높지 않음

남미, 동유럽 등 통화가치가 불안정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USDT 및 USDC 등 주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실생활결제에 사용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그 외의 자국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실생활 결제-송금 분야에서 실제 사용되는 비중은 매우 제한적이다. 자국 통화 기반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내 안착은 아직까지 실험적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실제 정착을 위해서는 법제화, 사용자 혜택 설계, 사업자 참여 등 복합적인 요건 충족이 선결 과제로 작용하고 있다.

III. 국내 스테이블코인 도입 추진 경과 및 영향

국내에서는 2023년부터 스테이블코인 도입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며, 2025년 들어 제도화 방향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지급결제 시스템 내 새로운 구성요소로 수용하려는 움직임은, 기존 금융 및 통화 시스템과의 연계를 전제로 정책적으로 조율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향후 지급결제 구조, 금융기관의 비즈니스모델, 소비자의 결제행태에까지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신용평가 관점에서도 다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1. 국내 스테이블코인 도입 진행 현황

2025년부터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방향이 가시화되었으며, 2025년 6월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를 통해 최초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적 근거 제공

2023~2024년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통화 인프라에 대한 정책 검토가 이뤄졌다.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실물 결제 시스템 내 편입하는 방안이 연구적 차원에서 검토되었으며,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관련 입법 로드맵과 연계해 제도화를 준비하였다.

2025년 들어 정책 방향은 보다 구체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한국은행은 도매형 CBDC를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 한강' 실험을 통해 디지털화폐 기반의 정산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구축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민간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이 소매 결제에서 보완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하였다. 금융당국도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 동향과 입법 사례를 분석하며 국내 입법방향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한 주요 금융기관들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관련 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실제 시장도입을 염두에 둔 민간 부문의 참여 기반도 확충되고 있다.

입법 측면에서는 2025년 6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해당 법안은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의 정의, 발행 및 유통 요건, 발행자의 자기자본 규제, 환불 준비금 보유 의무, 공시 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무위원회 심사 및 공청회, 본회의 통과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아직 도입 검토 중인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 방향 및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여당을 중심으로 지급결제 이외 목적으로 통화를 대체하거나, 투자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발행 주체는 은행, 핀테크, 간편결제 사업자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신용카드사의 경우 직접 발행보다는 결제 인프라 연동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표2. 디지털자산기본법안 주요 내용

항 목	내 용	관련 조항
법적 정의	디지털자산이란 분산원장에 디지털 형태로 표시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 디지털자산을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과 일반 디지털자산으로 구분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은 원화 또는 외국 통화의 가치와 연동되면서, 환불이 보장되어 있는 것을 의미	제 3 조(디지털자산)
적용 범위	외국에서 발행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자산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	제 102 조(적용범위)
발행인 자격요건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인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금융위원회 인가를 득해야함 • 대한민국 내 설립된 법인 • 자기자본 5억원 이상 • 충분한 전문인력 및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 구비 •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 타당하고 적절한 환불 방법 및 환불준비금 계획 • 주요출자자는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사회적 진용 보유	제 103 조(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의 자격요건)
이용자 상환권 보호	발행인이 적절한 환불준비금에 대해 상계나 압류를 금지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 외에는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	제 103 조(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의 자격요건)
환불준비금 현황 공시	대통령 소속 디지털자산위원회(디지털자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 의결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 평가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매년 디지털자산 시장과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 조사 항목에는 디지털자산 발행 및 유통 현황, 디지털자산업자의 영업활동,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의 환불준비금 현황이 포함	제 18 조(디지털자산 실태조사)
재무건전성 요건	디지털자산업자는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 이상으로 유지 금융위원회는 영업용순자본과 총위험액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고시 디지털자산업자는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금액을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45 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3 개월간 공시하여야 함	제 47 조(재무건전성 유지)
검사 및 감독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업자가 법 및 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함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한국은행은 필요할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제 135 조(감독) 제 139 조(디지털자산 업자에 대한 검사)
기타	회계처리 방법 및 공시 대상 및 요건 등을 규정	제 49 조(회계처리) 제 50 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등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주: 2025년 6월 발의

2. 스테이블코인 도입시 영향 전망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소비자 및 사업자 측면의 편의성 및 효율성이 개선되는 가운데, 금융시스템 전반에 있어 구조적 변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존재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고 사용이 활성화될 경우 소비자, 사업자, 금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구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단순히 결제수단이 하나 추가되는 차원을 넘어, 기존 지급결제 시스템의 구조 및 금융 비즈니스 모델의 재편성까지 수반할 수 있는 변화로 판단한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기존 원화 결제 시스템과 유사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되, 소비자와 가맹점 간 결제 중개단계가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결제 수수료 절감, 24시간 실시간 송금, 간편한 소액결제 등이 가능해지며, 실용성과 접근성이 개선될 것이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카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며, 정산 시점이 실시간으로 전환됨에 따라 운전자금 회전이 향상된다. 특히, 그간 수수료 문제로 인해 수용이 제한적이었던 소액결제 시장의 활성화가 가능해지며, 별도의 POS(Point of Sale) 단말기 없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만으로도 가맹점 등록과 결제가 가능한 구조가 마련된다. 이는 노점상, 영세 자영업자, 소형상점 등 오프라인 기반 소매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시스템 전반에 있어서는 기존 금융기관 중심의 예금 기반과 중개기능에 도전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스테이블코인으로 자금이 이동할 경우 은행 예금기반 축소 및 중개기능 약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구조 및 유동성 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신규 금융상품 개발, 결제 및 발행 관련 신규 수수료수익 창출, 디지털 자산 기반의 여신·결제·리스크관리 모델 개발 등 비즈니스 모델 다각화 및 디지털 전환의 기회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3. 도입과 관련한 쟁점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적 안착과 실질적 확산을 위해서는 법적·기술적 기반뿐 아니라, 경제적 유인, 사용자 편의성, 사용처 확대 등 실용적 요건 충족 필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글로벌 기축통화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코인으로서 가상자산 거래, 국가간 송금 및 결제 등에 이점이 있어, 전세계 여러 나라에서의 사용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 간편결제, 카드결제 등 기존 지급결제 인프라가 고도화되어 있어, 결제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이 기존 시스템 대비 명확한 체감 우위를 확보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단순히 '디지털 결제수단'이라는 속성만으로는 소비자에게 충분한 선택 유인이 되기 어려우며,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을 위한 실질적인 유인 설계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보여진다.

첫째, 경제적 혜택 중심의 인센티브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 예컨대,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 수수료 절감분의 일부를 소비자에게 할인으로 제공해주거나, 카드사용시보다 캐시백 수준을

높게 제시하고 결제금액의 일부를 포인트 등으로 환급하는 등 경제적 인센티브가 수반될 경우, 기존의 카드 결제방식보다 유리한 선택지로 인식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가격적 경쟁력을 제공하고, 초기 확산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범용성과 개방성 확보가 요구된다. 아무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스테이블코인이라 하더라도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면 활용도는 자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 온라인 쇼핑, 디지털 콘텐츠 구매, 오프라인 가맹점 등 생활밀착형 결제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후 다양한 산업 및 플랫폼으로의 확장도 용이해야 한다.

셋째, 사용자 편의성과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UX/UI(User Experience/User Interface)가 간소화되어 있어야 하며, 생체인증, 자동정산, 간편결제 연동 등 직관적이고 보안성 높은 사용경험이 제공되어야 한다. 거래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이 최소화되어야 스테이블코인의 실사용 확산이 가능하다.

국내 스테이블코인의 제도적 안착과 실질적 확산을 위해서는 법적·기술적 기반뿐 아니라, 경제적 유인, 사용자 편의성, 사용처 확대 등 실용적 요건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이 일상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잡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할 경우,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내 활용도와 지속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IV.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금융업권별 신용위험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GENIUS Act 통과로 인해 명확한 법적 규제가 마련됨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금융시스템의 일부로 편입시키고, 스테이블코인의 신뢰도가 과거 대비 향상되었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히 가상자산 시장에 머무르지 않고, 실물 경제 결제, 송금, 자산 관리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을 가속화시키며,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회사들도 스테이블코인 관련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할 전망이다.

국내에서도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사용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가 가시화됨에 따라, 향후 실제 발행과 사용이 본격화될 경우 금융업권별 수익구조와 사업기반에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국내에서는 은행, 핀테크, 일부 간편결제 사업자가 유력한 발행 또는 참여 주체로 거론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과 강도 역시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상대적으로 경제적 효용이 크지 않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생태계가 형성될지 여부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본 장에서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결제 기반 원화 스테이블코인(지급결제용)의 사용이 활성화된 상황을 가정하고, 비즈니스 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업권별 신용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1. 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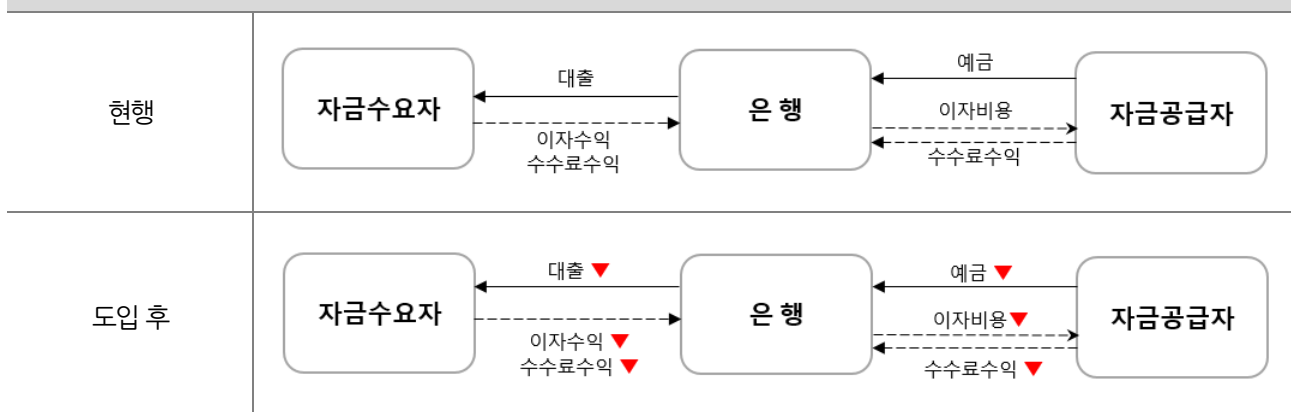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수신기반 약화, 이자 및 수수료 수익 감소 등으로 부정적

은행은 전통적으로 자금공급자로부터 예금을 유치하고, 이를 자금수요자에게 대출함으로써 예대마진을 중심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구조를 갖는다. 송금 및 결제와 같은 자금 이동 서비스에 대해서도 수수료수익을 취득하며, 이자수익과 수수료수익이 주요 수익 기반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수단으로서 광범위하게 도입되고 사용될 경우, 은행의 기존 사업구조에 대한 구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서 발행자가 아닌, 준비금 수탁기관의 역할에 머무를 경우, 스테이블코인의 사용 확산에 따라 기존 예금 기반에 대한 잠재적인 축소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통상적으로 발행액의 100%에 해당하는 준비금을 안전한 형태로 보유해야 하며, 이 준비금은 은행 예금과 구분되어 자체 운용이 제한되는 자산으로 관리된다. 준비금은 은행이 임의로 대출에 활용할 수 없으며, 발행자의 운용 지시에 따라 단기 국채, 중앙은행 예치금 등 고환금성 자산으로만 운용된다. 준비금에서 발생하는 운용 수익은 발행자의 수익으로 귀속되며, 은행의 수익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이 확산되면, 해당 준비금만큼 기존 은행 예금에서 자금이 이탈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은행의 수신 기반 축소 및 대출 여력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대출 여력 축소는 이자수익 감소로 이어지며 특히 규모의 경제 확보가 중요한 은행업 특성상, 예금 유치를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할 유인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조달비용 상승, 순이자마진(NIM, Net Interest Margin) 하락,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송금 및 결제 영역에서 스테이블코인 기반의 저렴한 서비스와의 경쟁이 불가피해지면서, 기존 수수료 수익 감소도 예상된다. 준비금 수탁을 통해 일부 수수료 수익을 확보할 수는 있으나, 전체적인 수익규모 감소를 보완하기에는 미흡할 수 있다. 따라서 수신기반 약화, 이자 및 수수료수익 감소 등으로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다.

그림3.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은행업에 미치는 영향



주1: ▼ 기존 대비 감소 전망

주2: 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직접 발행자로 참여할 경우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준비금 운용수익 및 신규 수수료수익원 확보를 통해 수익성 저하 폭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음

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직접 발행자로 참여할 경우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준비금 운용수익 및 신규 수수료수익원 확보를 통해 수익성 저하 폭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결제 생태계에서 핀테크 및 빅테크 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자 지위 획득을 통해 시장 주도권을 유지하고, 디지털 금융의 표준과 시스템 구축을 주도할 수 있는 전략적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디지털 자산 기반 금융으로의 전환에 있어 은행의 시장지배력과 신뢰도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다.

다만, 준비금은 안전성과 환금성을 최우선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초저위험·고유동성 자산으로 운용될 수 밖에 없어, 준비금을 통한 운용수익 규모는 제한적일 것이다. 따라서 준비금 운용수익은 대출을 통한 이자수익보다 낮을 수밖에 없어, 은행의 전반적인 이자수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국가간 결제 및 송금 수요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은행의 예수기반을 축소시키고 대출 여력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자 지위 획득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의 폭이 보다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2. 신용카드

기존 카드 기반 결제구조에 대한 대체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국내 신용카드사의 경우 스테이블코인과 유사한 속성을 가진 체크카드 사용 비중이 높지 않아, 부정적 영향의 정도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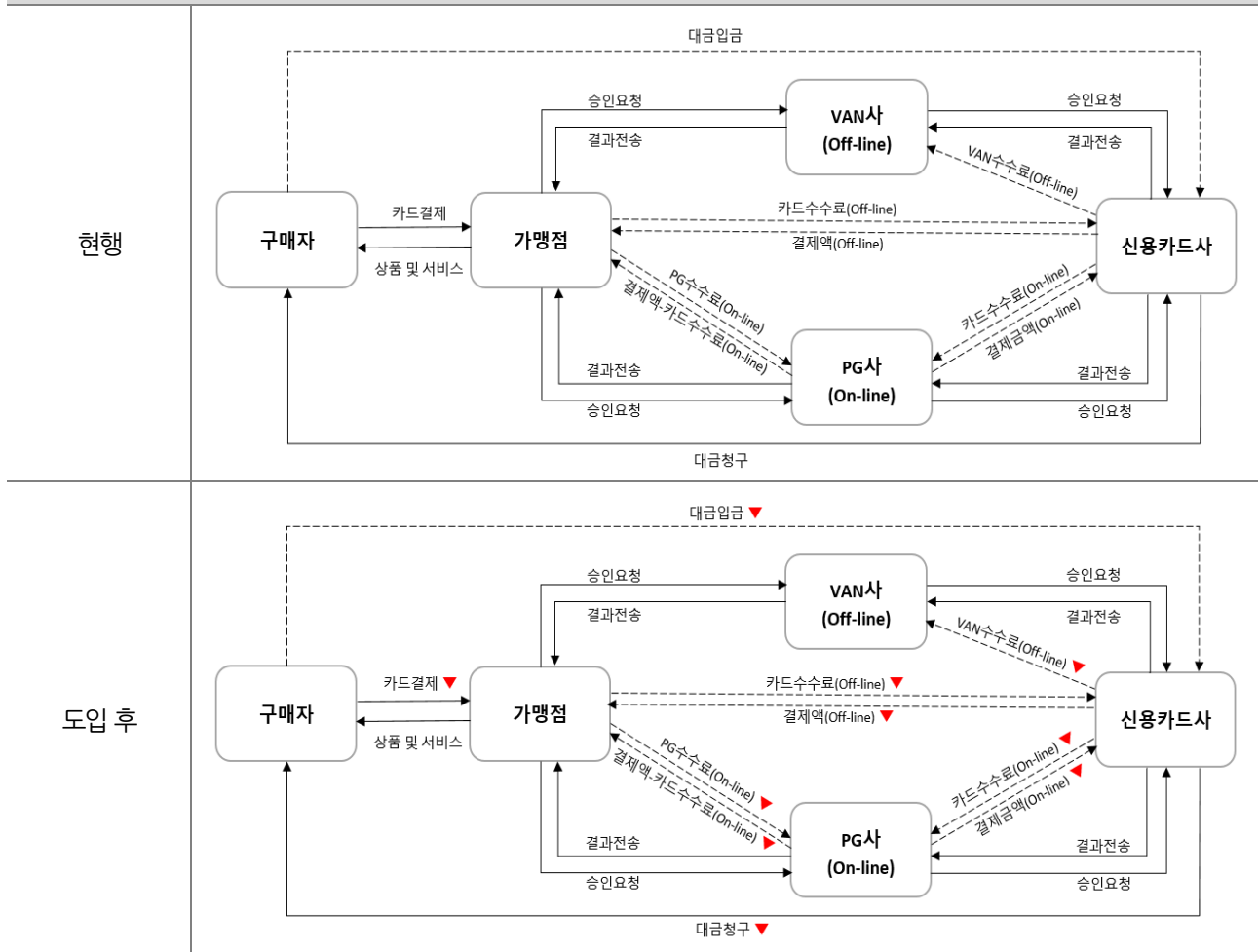
스테이블코인의 결제와 정산 과정에서의 중개단계 축소 및 수수료 절감 효과를 고려할 경우, 이론적으로 기존 카드 기반 결제구조에 대한 대체수단으로 작용하며 신용카드사의 수익구조를 위협할 수 있다. 다만, 국내 신용카드사의 경우 스테이블코인과 유사한 속성을 가진 체크카드의 사용비중이 높지 않아, 부정적인 영향의 정도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판단한다.

현재, 국내 신용카드 결제는 구매자와 가맹점 간의 거래승인과정, 가맹점과 신용카드사의 대금지급 과정, 신용카드사와 회원과의 결제대금회수과정의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구매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오프라인에서는 VAN(Value Added Network)사, 온라인에서는 PG(Payment Gateway)사를 통해 신용카드사가 해당 거래의 승인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승인 결과는 다시 VAN사 또는 PG사를 통해 가맹점에 전달된다. 이후 신용카드사는 결제정보를 바탕으로 카드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가맹점에 정산하고, 최종적으로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면서 전체 결제 절차가 종결된다. 이 과정에서 신용카드사뿐 아니라 VAN사·PG사 등 다양한 중개 기관들이 수수료를 수취하며, 신용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를 통한 수익 외에도 회원 대상 신용판매를 통한 이자수익까지 확보함으로써 수익구조를 다층화하고 있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 결제는 이러한 복잡한 중개구조를 대체하여, 발행자의 지급결제 인프라를 활용해 구매자와 가맹점 간의 여러 중개단계를 축소하는 한편, 거래를 간단하고 신속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거래 승인, 수수료 정산, 대금 정산 등의 단계가 간소화되며,

가맹점 입장에서는 결제수수료 절감과 실시간 정산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기존 카드결제보다 선호할 유인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확산될 경우, 신용카드사를 통한 결제금액이 감소하고, 가맹점 수수료수익 역시 축소될 수 있다.

그림4.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신용카드업에 미치는 영향



주: ▼ 기준 대비 감소 전망

스테이블코인은 사전에 준비금을 예치해야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구매자 입장에서는 체크카드와 유사한 속성을 가진다. 2024년 기준 국내 신용카드 업권 내 체크카드 수수료 수익은 약 1.1조 원으로 전체 가맹점 수수료 수익의 약 10% 내외, 전체 영업수익의 약 5% 내외에 불과하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따른 체크카드 사용 감소로 인해 영업수익이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 또한, 가맹점 수수료율의 경우 체크카드가 신용카드 대비 평균 30% 낮은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영업이익 감소 폭은 영업수익 감소 폭 대비 더욱 작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신용카드업권 전체의 사업기반 및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판단한다.

신용카드사 입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결제 및 정산 인프라를 카드사 플랫폼에 연동하거나,

스테이블코인 지급 서비스, 스테이블코인 결제 데이터 기반 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등 신규 수익원 확보 전략을 마련함으로써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응할 것으로 전망한다.

3. 증권

토큰증권 시장의 확산과 맞물릴 경우 신규 사업영역 확대, 수익기반 다변화 측면에서 증권업에는 긍정적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증권업권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중립적이나,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판단한다. 현재 증권사의 전통적인 수익모델(브로커리지, IB, 자기매매 등)과 스테이블코인의 직접적인 연계성은 낮은 편이다. 그러나, 토큰증권(STO, Securities Token Offering) 시장의 확산과 맞물릴 경우, 스테이블코인은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과정에서 효율적인 결제·정산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전통적인 수익모델에서 창출되는 수익 대비 토큰증권과의 연계 수익 비중은 높지 않을 전망이나, 신규 사업영역 확대 및 수익기반 다변화 측면에서 기회 요인이다.

토큰증권은 실물자산이나 비상장 지분 등 다양한 비정형 자산을 블록체인 상에서 소액 단위로 거래 및 유통할 수 있도록 구조화한 디지털 증권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이러한 토큰증권 거래에 있어 디지털 현금의 형태로 실시간 결제 및 정산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증권사는 향후 토큰증권 발행 주관, 유통 플랫폼 제공, 디지털 자산 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연계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으며, 기존 주식·채권 중심의 수익구조에서 다양한 비정형 자산으로 서비스 제공 대상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현재 국내 토큰증권과 관련한 법제화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증권사가 공식적인 발행 주관사로 참여하는 구조는 아직 형성되지 않은 초기 단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증권사들은 토큰증권 시장 선점을 위해 자체 플랫폼 개발, 블록체인 기술기업과의 협업 등을 통해 사업기반 확보를 선제적으로 추진 중이다. 향후 관련 법제화가 완료될 경우,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토큰증권 관련 업무에 대한 신속한 진입과 수익화 기반 확보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한편, 현재 일반적인 증권거래는 T+2일(거래일로부터 2영업일 후 결제) 정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매매 체결과 자금 및 증권의 실질 이동 간에 시차가 존재한다. 이러한 구조는 거래 상대방 부도 등으로 인한 결제불이행 리스크(결제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으며, 유동성 관리와 운영안정성 측면에서도 일부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실시간 결제·정산이 가능해지며, 이는 결제리스크 완화와 운영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다만, 토큰증권의 진행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정산 시스템도 실거래 수준에서는 확산 전 단계에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익기여도나 사업기반 다변화 수준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4. 캐피탈 및 저축은행

캐피탈은 중립적이나, 저축은행의 경우 수익성 저하 및 유동성 관리 부담이 가중되는 등 부정적 전망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캐피탈사에는 중립적이나, 저축은행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캐피탈사의 경우 자동차, 주택, 기계장치 등 자산담보 중심의 할부, 리스, 대출 상품을 주력으로 하고 있어, 영업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반면, 저축은행의 경우 스테이블코인이 실시간 송금·결제 가능한 저비용 디지털 현금 수단으로 인식될수록, 저축은행 예금이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 핵심 자금조달 원인 예금의 유치경쟁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저축은행은 예금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조달금리를 상향 조정할 유인이 높아지며, 이는 이자마진을 축소시켜 수익성을 저하시키고 유동성 관리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표3.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따른 금융업권별 영향 전망

구분	은행	신용카드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영향	부정적	중립적	긍정적	중립적	부정적
영향대상	사업포트폴리오 수익성 유동성	수익성	사업포트폴리오 수익성	NA	수익성 유동성
영향강도	보통	낮음	낮음	낮음	보통

자료: 현재 검토시점에서의 NICE신용평가 전망

주1: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및 결제 기반 원화스테이블코인의 사용이 활성화된 상황을 가정하고, 비즈니스 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신용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주2: 현재 도입 검토 중인 스테이블코인 관련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향후 제도 변화와 금융업권별 대응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V. 시사점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은 금융업권 전반에 걸쳐 수익구조, 경쟁환경, 사업모델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포함하고 있으며, 업권별로 기회와 도전요인이 병존한다.

은행 및 저축은행은 예금유출로 인한 수신기반 약화와 조달비용 상승, 이에 따른 순이자마진 저하 등 수익성 측면의 부담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영향이 부정적이다.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송금·결제 인프라가 본격화될 경우, 기존 금융중개 기능의 상대적 약화가 불가피하다. 다만, 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직접 발행자로 참여할 경우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준비금 운용수익 및 신규 수수료수익원 확보를 통해 수익성 저하 폭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

구조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신용카드 기반 결제구조에 대한 대체수단으로 작용하며 신

용카드사의 수익구조를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국내 신용카드업권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한다. 스테이블코인은 사전에 준비금을 예치해야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구매자 입장에서 체크카드와 유사한 속성을 가진다. 국내 신용카드 업권 내 전체 수익 및 이익에서 차지하는 체크카드 수수료 수익 및 이익 비중이 낮아,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신용카드 업권 전체의 사업기반 및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판단한다.

증권사의 경우 스테이블코인 기반 디지털 결제·정산 인프라를 활용하여 신규 수수료 기반 수익원을 확보하고, 기존 사업영역의 확장 및 다각화를 모색할 수 있어, 수익성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캐피탈의 경우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주력 사업인 자산담보 중심의 금융상품에 미치는 영향이 낮아 중립적으로 판단한다.

다만, 상기의 분석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및 결제 기반의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이 활성화된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현재 도입 추진 중인 국내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많은 요소 및 특성들이 미확정된 상황으로, 향후 도입 과정에서 세부 특성들이 확정되어감에 따라 금융업권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과 정도는 변동될 가능성이 높다. NICE신용평가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화 경과, 발행자 선정 대상, 실제 사용 확산 수준, 업권별 대응전략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관련 요소를 금융업권 신용평가시 반영할 계획이다.

〈유의사항〉

NICE신용평가㈜가 제공하는 신용등급은 특정 금융투자상품, 금융계약 또는 발행주체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대한 NICE신용평가㈜ 고유의 평가기준에 따른 독자적인 의견이며, NICE신용평가㈜가 외부에 제공하는 보고서 및 연구자료(이하 '발간물')는 상대적인 신용위험 현황 및 전망에 대한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NICE신용평가㈜는 신용위험을 미래의 채무 불이행 및 손실 가능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NICE신용평가㈜의 신용등급과 발간물은 금리나 환율변동 등에 따른 시장가치 변동위험, 해당 증권, 유동성위험, 내부절차나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영위험을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NICE신용평가㈜의 신용등급과 발간물은 미래의 채무불이행 및 손실 가능성에 대한 현재 시장에서의 의견으로 예측정보를 중심으로 분석, 평가되고 있으며, 예측정보는 예상치 못한 환경변화 등에 따라 실제 결과치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등급과 발간물은 사실의 진술이 아니라, 미래의 신용위험에 대한 NICE신용평가㈜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특정 유가증권의 투자의사결정(매매, 보유 등)을 권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신용등급과 발간물은 정보이용자의 투자결정을 대신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이용자의 투자결정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에 정보이용자들은 각자 유가증권, 발행자, 보증기관 등에 대한 자체적인 분석과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개인투자자의 경우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NICE신용평가㈜는 신용등급 결정에 활용하고 발간물에 주요 판단근거로서 제시하는 정보를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회사 제시자료 및 각종 공시자료 등의 자료원으로부터 수집하여 분석, 인용하고 있으며, 발행주체로부터 제출 자료에 거짓이 없고 중요사항이 누락되지 않았으며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없다는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 대상인 발행주체와 그의 대리인이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든 전제하에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NICE신용평가㈜는 자료원의 정확성 및 완전성에 대해 자체적인 실사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평가의 특성 및 자료원의 제한성, 인간적, 기계적 또는 기타 요인에 의한 오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NICE신용평가㈜는 신용등급 결정 시 활용된 또는 발간물에 주요 판단근거로서 제시된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도 그 정확성, 적합성 또는 충분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정보의 오류, 시기 및 허위, 미제공 등과 관련한 어떠한 형태의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NICE신용평가㈜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사항을 제외하고 신용등급 및 발간물 정보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 및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NICE신용평가㈜에서 작성한 발간물에 수록된 모든 정보의 저작권은 NICE신용평가㈜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NICE신용평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본 정보의 무단 전재, 복사, 유포(재배포), 인용, 가공(재가공), 인쇄(재인쇄), 재판매 등 어떠한 형태든 저작권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를 금합니다.